
1995年度行政事務監査 交通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地下鐵建設本部

日時 1995年11月29日(水) 午前11時
場所 交通委員會會議室

(11時 04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昌根; 成員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地下鐵建設本部에 대한 1995年度 서울特別市議會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始英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始英 委員; 李始英 委員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行政事務監査 受監을 받게 되는 關係公務員들한테 정말 감사를 표시하고, 本委員이 지난 11月 15日 開花山驛 현장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우리가 要求한 資料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建設4部長한테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4部長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開花山 驛舍內에 저희들이 요구한 資料가 있습니다. 토목부분에 있어서 施設物設計圖面과 또 實施設計圖面을 그쪽 현장에 비치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

小委員會에서 그곳에 참석하니까 實施設計圖面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施設物設計圖面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저희 奉仕委員과 小委員會에서는 원만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本委員이 常任委員會에서 建設4部長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곳에는 實施設計圖面과 施設物設計圖面이 비치되어 있었고, 저희들 모든 委員들과 자원봉사대원들도 다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마디 해 주세요.

○委員長 李昌根; 회의 진행상 答辯은 조금 이따 해 주시고, 그러면 本委員會 가결에 의해서 金義在 行政1副市長께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어 行政1副市長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증인으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宣誓)

○委員長 李昌根; 그러면 地下鐵 城南線 450億원의 件에 대한 것을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春 委員님께서 質疑하시겠습니다.

○金永春 委員; 金永春 委員입니다.

오늘 이렇게 金義在 行政1副市長을 뵙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市 行政府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거나 그런 입장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제대로 執行이 되고 推進돼야 할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市議會가 어떻게든지 도와서 잘 풀릴 수 있는 方法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제 예정된 時間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

야 되는데 그 동안 날짜로 따지면 하루지만 迂餘曲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임명직 市長時代, 적어도 중앙집권적인 時代, 地方自治制가 되지 않았던 時代에는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완전한 地方自治時代가 시작이 됐고, 또 서울시 行政에 대해서 議會나, 執行部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市長부터 團體長이 直接選舉를 통해서 선출이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地方自治의 시작단계라고 봤을 때 이러한 試行錯誤는 어차피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뜻에서도 적어도 출석을 요구한다거나 이럴 때는 일의 輕重을 막론하고, 何時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쉽게 대화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행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 質問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地下鐵建設本部長에게 물었던 얘기입니다. 地下鐵 8號線 市界外 구간인 福井과 牡丹 사이의 10km구간의 建設費 450億원과 관련된 豫算으로 오늘 行政1副市長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0年 12月 5일에 國務總理 行政調整室과 경제기획원, 교통부, 그리고 서울시 관계관이 함께 한 자리에서 地下鐵 建設 재원조달 관계기관 會議를 통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 2단계 총 建設費中 25%를, 그리고

市界外 구간인 바로 이 福井-牡丹間 10km구간은 中央政府가 100%를 支援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고보조와 정부용자 내역, 그리고 연차별 지원계획 내용에 대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에게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資料를 提出해 달라고 했는데 그 資料가 아직 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님보다 行政1副市長께서는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신 것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委員長 李昌根; 또 質問이 있을 것이지요?

○金永春 委員; 네.

○委員長 李昌根; 그러면 증인으로 출두하신 金義在 行政1部市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지금 資料를 90年度 12월에 합의된 내용대로 總理室에서 저희한테 지시된 내용하고, 그 동안 실제 支援內容,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아직까지 支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國會에 요청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資料로 전부 복사해서 일괄해서 드리려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資料가 도착하면 委員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다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炳仁 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李昌根; 鄭炳仁 委員 議事進行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炳仁 委員; 우리 金義在 行政1副市長님, 答辯은 일어서서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會議規則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해도 없었는데.....

○委員長 李昌根; 알았습니다. 증인께서는 答辯을 답변석에 일어서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委員님이 양해를 해 주실 때만 앉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資料를 가져오면 資料를 가지고 答辯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석에서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春 委員; 이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출된 資料를 보면 서울市로서는 그 동안에 92年 11月 9日에서야 政府豫算案 검토하는 도중에 政府 支援金 100%가 결국은 일부 450億원이라는 돈이 일반용자로 돌려졌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豫算案이 작성된 그 시점 이전에 적어도 中央政府에서 豫算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때는 지금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평상시에 豫算案을 편성을 하면서 서울市와 관련 있는 豫算에 대해서는 사전에 主務部署長이라든가 또는 市長이나 副市長이나 企劃管理室長이나 이러한 기관하고 어떤 사전협의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中央政府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調整을 해서 이렇게 豫算案 책자로 만들어진 뒤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金永春 委員;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그러려면 資料를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요.

(「資料를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네, 資料가 量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金 委員님한테만 드리기가 뭐해서 全 委員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金永春 委員; 行政1副市長께서는 그 資料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복사를 하기 위해서 원본을 줬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그러면 資料 말고는 전혀 答辯할 수 없습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그렇지는 않은데, 資料를 보시면서 하면 아주 명료하지요.

○金亨吉 委員; 補充質問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金永春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金亨吉 委員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까.

○金亨吉 委員; 金亨吉 委員입니다. 사실상 交通常任委員會에서 며칠 전에 증인출두 요청을 받았어요?

○委員長 李昌根; 증인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석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출두 요구서를 받은 것은 어제 제가 받은 것으로 記憶을 하는데요.

○金亨吉 委員; 記憶을 하는데요, 하지 마시고, 行政1副市長으로서 분명하고 명확한 答을 바라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네, 알겠습니다.

金永春 委員님이 처음에 유감의 뜻으로 말씀하신 그 問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명쾌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常任委員會에서 결의를 하면, 議

會 規定에 副市長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執行 部內에서 이 問題에 대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議會에 나오지 않겠다든지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 常任委員會는 局長이나 本部長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副市長이 常任委員會의 결의에 따라서 여기 저기 자꾸 나가게 되면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副市長이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하는 問題로 執行部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問題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어제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면 그 내용이나 와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어제 식사하시는 자리에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說明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午後에 決議가 있었기 때문에 이 決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委員長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어제 午後에 資料를 준비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늘 아침에 양해가 안 되신다면 이왕에 常任委員會에서 決議된 내용을 존중을 해서 제가 와서 答辯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委員會에서 약간 의사의 변동이 계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기다리다가 委員長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 나오는 것이 좋겠다, 決議를 다시 바꾸는 데 절차상 問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委員長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준비하라는 資料를 달라 그랬더니 한 部만 해 놓았어요.

그래서 委員會에 가면 委員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이 資料를 제공을 해 드려야 되니까 委員님 數대로 복사를 해서 가

지고 따라 와라, 하고 저는 시간을 맞추어서 오느라고 늦게 되었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런데 그런 통보를 받으셨으면, 과거의 선례다, 또 다른 常任委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委員長 李昌根; 金亨吉 委員님, 잠깐만요.

지금 行政1副市長께서 答辯한 데에 제가 여러 委員님들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 本 常任委員會에서 첫 常任委員會 21日 강원산업 社長과 姜德基 前 企劃室長, 그 다음에 서울시 金義在 副市長을 증인채택을 해서 우리가 서류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심시간에 오시게 된 동기는 증인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회의석상에 나오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간담회 형식으로 휴게실에서 어떻게 보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電話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會議가 끝나고 남포면옥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그것은 本人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사항이지 제가 그리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一切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亨吉 委員; 그 다음에 出席을 바라는 통보를 어제 받으셨다고 했지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行政1副市長 金義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委員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姜德基 副市長하고.....

○金亨吉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시차가 안 맞아서 지금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資料를 보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요.

○金亨吉 委員; 아니, 資料, 資料 하지 마시고, 통보서 받은 것이 어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잘못 된 표현이고.....

○行政1副市長 金義在; 죄송합니다 姜德基 副市長하고 저하고.....

○金亨吉 委員; 언제 받았냐니까, 姜德基 副市長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行政1副市長님한테 직접 받은 날짜가 언제냐 했는데 어제 받았다고 했는데 안 맞으니까 다시 재질문하는 것입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제가 姜德基 副市長을 거론하는 것은, 姜德基 副市長 말씀을 하니까.

그 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錯誤가 있는 것 같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약간 錯誤가 있었던 것입니다.

○金亨吉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서울市 재정에 대한 총책임을 맡은 行政1副市長으로서 交通 常任委員會에서 450億원에 대해서, 가뜩이나 서울市가 부실이 돼서 地下鐵 問題를 개선하려고 서울市政 발전을 위한 하나의 質疑事項인데, 안 나오려고 하고 외곽으로 자꾸 교섭하면서 電話나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시각을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이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市政에 바쁘시고 일도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전문적인 사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인데, 관료적인 식을 가지시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 金永春委員이 지금 조목 조

목 質疑를 하니깐 그냥 막연하게 資料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앞에 왔습니다, 이것은 불성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交通常任委員會에서 최소한도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고견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2時間이나 3時間 정도 흐름이나 또 過程이나 어느 정도 기초과약을 하고 오셨어야 할 것인데 무조건 안 오시려고만 하고, 기초과약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무조건 資料만 갖고 오라고 하고, 資料 갖고 오면 배부할 것입니다 하니깐 답답해서 제가 보충 질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세를 말씀하세요. 외곽에 電話나 때리고, 탄데 가서 안 하면 안 되냐, 다른 委員한테 얘기하고 뭐 하고, 이것 이제 바꿉시다. 이제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외곽에서 電話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金亨吉 委員; 電話가 왔는데요, 사람도 왔고.

○行政1副市長 金義在; 電話를 제가 했습니다.

○金亨吉 委員; 저는 사실을 얘기하지, 제가 여기에서 실제 피부적으로 닿는 것을.....

○行政1副市長 金義在; 그러니까 제 答辯을 들으시고, 答辯을 솔직히 드릴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金亨吉 委員; 副市長 位相을 찾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대단히 죄송하지만, 質問하신 問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도 입장을 정리해서 答辯을 드리고 싶

습니다.

○金亨吉 委員; 議會法 第70條에 나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 있고 하면 오셔 가지고 투명하게 몇몇하게 얘기도 해 주고 같이 걱정도 해 주고, 이런 일은 잘 안 풀리니까 委員님들이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아 모아 가는 行政의 토털 개념으로 가주셔야지, 어제 점심시간에 나는 누구 만나러 가서 얘기했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비중의 측정을 잘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나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 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서울시 財政問題에 대해서는 자다가도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렇다면 450億원을 투입한 起債 時點이 언제예요? 그것부터 물어 봅시다.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450億원의 起債 時點이 언제입니까? 起債 時點.

○行政1副市長 金義在; 93年 9月입니다.

○金亨吉 委員; 9月 며칠이에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걱정하신다니까 그러면 9월에 起債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利子が 얼마 정도의 負擔을 받고 있습니까? 利子が 年利 몇%입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5%입니다.

○金亨吉 委員; 그러면 93年 9月부터 지금까지 利子を 얼마 정도 負擔한 바 있습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46億원입니다.

○金亨吉 委員;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지불해야 할 돈이 있는

데 친구가 대납을 해 주시오 해서 내가 대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돈으로 대납을 했으면 그 돈 받으러 가야 되지요? 원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받아야 되겠지요, 내가 대납을 했으니까? 대납입니다 대납, 대신 납부를 해 주었으니까 그 돈을 받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네.

○金亨吉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네, 맞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렇다면 1, 2億도 아니고 요즘에 5,000億說이다 뭐다 해서 간딩이들이 커가지고 金額이 나오지만, 서울시 財政으로서 450億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크기 때문에 450億원에 대해서 EPB하고, 그 다음에 交通部하고, 서울시하고, 國務總理室하고 합의해서 또 國務總理室에서도 90年 12月 18日 국행심 1025-8025로 國務總理室에서 城南區間에 財政支援 25%, 100%支援토록 조치했으니 서울시는 地下鐵建設本部에 최우선 배분토록 조치를 해라 하는 공문을 서울시가 받았어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받았지요.

○金亨吉 委員; 그리고 나서 대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委員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金亨吉 委員; 잠시만요.

그러면 대납해서 원금만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데, 利子を 물고 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行政의 미스나, 또는 주인의식이나, 中央政府의 공문까지도 國務總理室에서 와 있는데

도 못하고 있던 점이 아쉽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450億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마무리를 질 것이냐, 물론 地下鐵建設本部長께서 고심 어린 답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支援을 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財政을 담당하는 副市長님으로서 서울시의 어려움을 밤낮 없이 고심한다고 하셨는데 450億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해서 왜 진작에 빨리 가속화시켜서 이 문제를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어떤 對策으로 어떻게 推進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이 문제는 기초적으로 알고, 숙지를 하시고 答辯하셔야지 무성의하게 資料로 배포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한다는 자체가 서울시 議會를 경시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입장은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희 서울시 執行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90年度에 中央政府와 서울시가 地下鐵 建設을 하면서.....

○金亨吉 委員; 利子를 負擔한 것은 누가 앞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합의된 내용에서, 문안을 보고 정확하게 答辯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것이지 성의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國務總理 行政調整室에서 온 서류에 보면 경제기획원과 交通部에서는 서울시 地下鐵 2단계 종합건설비의 25%하고

'8號線 中 市界城南區間에 대하여는 100%' 이 부분입니다.

○金亨吉 委員; 네, '支援토록 조치했으니' 그랬습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質問을 하셨으니까 제 말씀을 들으셔야 서로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액을 中央政府에서 支援토록 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中央政府에서는 이 支援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融資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3,340億원 중에서 450億원에 대한 融資도 支援으로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나와 있는 支援이라는 용어는 순수한 보조를 얘기하는 것이지 融資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계속 政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에게 보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中央政府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 뿐만 아니라 釜山, 仁川 여러 도시에 대해서 地下鐵 建設을 하면서 이 기준에 똑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년 동안 이 문구 해석에 대해서 보조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보조지 融資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우리가 豫決委員會에다가 이런 사정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배포해 드린 資料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 출신 豫決委員님에게 이 資料를 주어서, 資料에 보시면 중간에 이 資料가 있습니다. 地下鐵 建設費 國庫支援에 관한 質疑書가 있습니다.

이 質疑를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 地下鐵 建設하면서 저희가 거론한 問題點을 전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質問을 하고, 거기에 대한 建設交通部長官의 分別심의에 있어서의 答辯을 받아서 이 答辯을 가지고 建交通部하고 다시 이 問題를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亨吉 委員; 그런데 5년이 됐잖아요. 90年 12월에 이 問題가 발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95年 12월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業務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反映했습니다, 이렇게 교섭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5年, 장기간 끌기 때문에 이런 問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政府에서 支援을 받는 입장이고, 政府에서는 支援을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계속 支援이다 하는 것은 融資를 포함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今年에는 저희가 어차피 이때까지 받지 못한 돈에 대한 利子도 48億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城南線은 명백하게 100% 支援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것이 450億원입니다. 그래서 500億원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해 달라는 要求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年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하시는데 그 5年 동안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간 것은 없고, 그러나 큰 성과 없이 이런 일에 임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도저히 힘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것은 의지력이 약하다 보긴, 國務總理 行政

調整室에서 90年 12月 18日 공문이 됐고, 그 다음에 地下鐵建設本部에서 92年 공문이 나갔고, 그 다음에 2次로 93年 6月 20日 공문을 보낸 것이 있고, 또 94年 3月 26日, 또 94年 3月 18日, 이렇게 공문을 띄운 사본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5年동안 1년에 한 번씩 공문을 띄워서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공문은 한 번 가면, 저희 企劃管理室이나 副市長은 財經院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예산투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데도 지금 政府에서도 재원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支援이라는 문구를 融資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豫決 委員長님을 뽑고, 또 財經院長官도 특별히 뽑고, 이런 問題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렇다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로써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매듭을 지을 의지는 있습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오늘 아침에도 豫算室長하고, 이 問題를 주장했던 趙容直 委員님하고 建交部 次官하고 이 問題 때문에 한 시간 가까이 전화를 했습니다.

○金亨吉 委員; 전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3代때 速記錄을 보니까 3代때도 이 問題가 거론이 되어서 企劃管理室長께서 분명하게 답이 나왔는데 또 해를 넘기고 하니까 이 問題가 재 발의가 된 것이지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지금 質問하시는 問題에 대해서는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答辯하기는 어렵고.....

○金亨吉 委員; 아니, 돈이 問題니까 그렇지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글썸 돈인데요, 저희는 달라고 애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金亨吉 委員; 그러면 國務總理室하고 EPB하고 交通部하고 서울시가 합의한 날짜가 당초에 언제예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資料에 보시면 90年 12月 5日입니다.

○金亨吉 委員; 그것이 하나의 모범이고 모체가 아닙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그렇습니다.

○金亨吉 委員; 그럼 그것 가지고 충분한 大義名分이나 당위성이 나오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성취를 해서, 利子까지 물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지요. 그 문제를 하려는 의지력이 나와야 되는데 5年째 끝나가니까 이 문제가 또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저희 입장에서는 재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구에 대한 해석상 融資는 보조로 전액 교체해 주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財經院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支援에 대해서 融資를 포함한 것은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地下鐵을 파는 市·道에 동일한 문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기준에 의해서 融資를 하고 있기 때문에.....

○金亨吉 委員; 남의 동네 불나니까 우리 동네도 불난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서울시하고, 中央政府하고 해당되는 얘기만 하자 이 얘지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金亨吉 委員; 他 地下鐵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문

구 有權解釋 받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副市長의 돈에 관련된 의지력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地下鐵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지요. 우리 서울시로서 지금 막대하게 재정적으로 곤란하니까 이 문제는 재정을 담당하는 副市長으로서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겠다, 이것이 하나의 명쾌한 답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이 질문서를 보시면 우리 서울시의 의지는 담겨져 있습니다.

○金亨吉 委員; 공문 보낸 것하고 전화 한 시간 한 것하고 의지는 다르지요. 조금 전에 공문 계속 보냈고, 저는 오늘도 전화 한 시간 했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저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사인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答辯할 수 있지만 우리가 政府에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金亨吉 委員; 서울시의 副市長 정도면 국제적인 副市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힘도 있고, 그만한 능력도 있고,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中央政府보고 돈 450億 때문에 이제까지 5年 동안 끌어간다는 것이 안 맞아서 하는 얘이지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지위를 높이 봐 주셔서. 그런데 450億원보다 45億원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서울시 입장은 委員님 입장하고 근본적으로 시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中央政府에서 서울시를 보는 것은 서울시는 예산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을 지방에 비해서는 조금 차등을 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亨吉 委員; 재정자립도 이전에 서울시 負債가 얼마입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金亨吉 委員; 잘못된 시각이지요. 그러니까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서 꿰자 이런 얘가지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꿰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꿰려고 그래도 안 꿰진다는 것이지요.

○金亨吉 委員; 그럼 이 문제를 못 푼다 이런 얘기입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못 푼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今年度에.....

○金亨吉 委員; 또 해 넘기고來年度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재질 의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今年度에 저희가 기대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정확히 조금 심도 있게 얘기했고, 이번에는城南線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화하면서 느낌이 지금 國家豫算에 예정되지 않은 증액이 한 1兆 2,000億원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 것만 일방적으로 넣어준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한 번씩 요소 요소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틀림없이, 지금은 문을 잠궈놓고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를 꼭 관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李昌根; 金亨吉 委員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시고 다른 각도의 質問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春 委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金永春 委員님.

○金永春 委員; 제가 質問을 하다가 우리 金亨吉 同僚委員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걸러냈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4월에 交通委員會에서 정식으로 市長 出席 同意案을 의결해서 市長 대신에 企劃管理室長이 나와서 답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본 현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꼭 해결하겠노라고 그렇게 하고나서 사실은 1年半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선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금 行政1副市長께서도 얘기를 했고, 또 어제 地下鐵建設本部長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뒤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노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공문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93년에 네 번, '94년에 다섯 번이나 中央政府와 현안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95年度 들어서만 단 한 件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 4월 常任委員會에 와서 企劃管理室長이 答辯했던 것이 전혀 우리 市議會에 대한 책임 있는 답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副市長까지 출두를 요구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市長이 해야 될 답입니다만, 한 단계 낮춰서 우리 行政1副市長께서라도 그 동안 해결노력은 분명히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만, 결과를 봤을 때는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市民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이 해결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돈 주는 쪽은 中央政府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안 들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합시다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市民들이 이 사실을 낱낱이 안다고 봅시다. 우리 區域도 아닌 京畿造 城南市 區間에 우리 기술과 우리 노동력과 우리 재원으로 그것도 利子도 연간 5%씩 1년에 22億원 정도 되나요? 이렇게까지 부담해 가면서 남의 市·道の 일까지 해 줄 정도로 우리 재정사정이 넉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합의서까지 써 가지고 中央政府가 주겠다는 돈마저도 아직도 못 받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지난 번 趙 淳 市長께서도 3期 地下鐵 問題 가지고 기존의 계획을 수정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것도 전략상으로 中央政府가 지금까지는 25%씩의 地下鐵 建設費用을 支援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최소한 50%정도는 支援을 해주어야 우리 서울시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겠다, 이런 뜻 때문에 사실은 중대한 일을 조정까지 해 가면서 市民들 여론에 의하면 왜 市長이 이랬다저랬다 하느냐하는 비난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합의서까지 작성이 돼서 中央政府가 주겠다는 돈도 못 받아내는 판에 그래봤자 450億원이에요. 그런데 3期 地下鐵 그 방대한 豫算 중에 50%까지 끌어올려서 관철해야 3期 地下鐵을 하겠다, 이렇게 中央政府에 대해서 압력

을 넣기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口頭禪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밖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450億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政府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내지 못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것을 받아내는 데 대한 특별한 腹案이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地下鐵建設本部長께서는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行政1副市長께서는 없습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저희가 특별한 腹案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城南線에 대해서는 100% 支援하기로 했으니까 그 支援에서 融資는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특별한 腹案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만일 地下鐵建設本部長이 특별한 腹案이 있다면 아직까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永春 委員; 우리 行政1副市長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件에 대해서 政府가 支援한다고 그러면 融資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市の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지금 2期 地下鐵 25% 받는 것 중에 서도 정부지원 중에 말하자면 무상지원도 있지만 용자지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城南線에 대해서는 적어도 融資를 포함한 국고 지원이라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남의 工事を 해 주고, 남의 사업을 해 주면서 우리 돈을 投資를 해

가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무슨 融資해 주는 것도 支援이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가, 中央政府에 대해서 그렇게 서울시가 약할 수 밖에 없는가, 한편으로 자조 섞인 생각이 듭니다만, 行政1副市長께서 서울市民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해결 못한 데 대한 소견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 이 자리는 交通委員會 委員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이것이 速記錄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은 市民들에 대해서 해야 될 얘기라고 봅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委員님 말씀대로 우리 區域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政府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라도 執行部에서 성의부족이나 논리부족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 市民들에게, 물론 우리가 市 財政을 운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中央政府에서 받아 올 돈이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財政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政府는 政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만 밀고 나가는데, 저희가 이 問題에 대해서 혹시라도 노력의 부족이라든지, 성의부족이라든지, 논리 부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명백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 政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것

이 좋겠다 하는 납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저희가 심지어는 여기 뿐만 아니라 타지역 融資부분에 대한 이자까지도 모두 내 나라, 이렇게 強攻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委員님들 뜻이 저희하고 財政問題에 대해서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昌根; 委員長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行政1副市長께서는 증인선서까지 하고, 확실하고 명쾌한 答辯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金永春 委員님 質疑에 의하면 '94年度에는 다섯 번이나 공문을 발송한 흔적도 있고 그러한 열의도 있는데, '95年度에는 한번도 그런 것도 없고 말로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과할 뜻이 없다 하는 것은 아까 선서하고 위배되지 않습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執行部가 논리가 없다든지, 또 의지가 없다든지, 성의가 부족하다든지, 또 市民의 욕구를 반해서 행동을 했다든지 그래서 안 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昌根; 아니, 결과와 흔적이 없으니까 金永春 委員께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사과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行政1副市長 金義在; 결과가 없는 것은, 5年 동안 공문을 많이 보내도 결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市民들에게 우리 서울시 執行部가 잘못 되었습니다 하고 사과할 정도로, 만일에 그런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차후에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밀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밀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昌根; 朴謙洙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謙洙 委員; 朴謙洙 委員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아까부터 제가 느껴온 사항입니다만, 6·27 地自制選舉가 끝나고 나서 무엇인가 그래도 서울市가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行政1副市長의 答辯으로 보아서는 그게 그거 아니냐, 民選時代나, 官選時代나 똑같은 것 아니냐, 우리는 서울市の 이러한 問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方法이 없기 때문에 中央政府 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答辯이 아니라고 보고, 상당히 失望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行政1副市長도 이런 答辯을 하는데 企劃管理室長이 오셨으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외에는 무슨 答辯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問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94年度까지는 상당히 나름대로 공문을 보내면서, 오히려 民選時代가 아닌 官選時代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95年度는 選舉 치르다가 또 選舉 이후에 임명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問題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확실히 없습니다.

물론 전화통화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전화통화야 수십 번 했으면 무엇입니까?

서울市民이 알았을 때, 나는 行政1副市長으로서 전화통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 서울市民이 알아줍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은 서울市民들한테 얘기할 答辯事項이 못하고,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합니다. 공문 하나 보내면 전화통화 수십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450億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個 區廳 豫算의 半입니다. 지난 번 3代 議員들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利子負擔이 46億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전화만 계속 통화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논리가 정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中央政府가 서울시 논리에 맞다고 생각이 될 것으로 市民들이 판단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해도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무슨 엉뚱한 일이 있을 때 기자회견 할 것이 아니라 합의서 써 주고도 中央政府가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支援을 않습니다 하고 기자회견 한 마디 하면 中央政府에서 豫算 내일 모레 당장 支援하게 되어 있어요. 中央政府가 서울시長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支援을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상세히 써 가지고, 여기 좋은 말씀 쓰셨네요. 서울시의 입장을 支援한다는 國會議員 입장에서 잘 해 놓았습니다. 런던이 75%, 뉴욕 60%, 파리 50%, 東京 49% 無償支援을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가 그냥 돈 주라는 것 아닙니다. 支援도 그냥 無償支援이 아닙니다. 약속해 놓은 것을 주라 이것입니다. 그것도 地下鐵 建設하는 데.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서울市民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案을 가지고 中央政府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한 바를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언론에 나가게 되면 地方自治時代에서는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中央政府가 그 얘기를 들어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行政1副市長께서 전화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한 資料를 가지고 서울市民들에게 알릴 그런 입장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常任委員會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서울市の 의지를 담은, 그런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昌根; 行政1副市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제가 전화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신데, 오늘 아침에 問題에 대해서 計數調整委員會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다고 해서 관계요로하고 통화를 해서 당부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제가 전화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副總理님하고 저희 市長님하고도 이 問題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입회해서 만났고, 또 어제 또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 다만 國務會議 席上에서 副總理께 당부를 드린 바가 있고, 또 國會에 가서도 豫決委員長이나 또 趙容直 委員님 이런 분들한테 여기에 나와 있는 資料를 가지고 가서 사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朴謙洙 委員; 行政1副市長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이 資料가 서울市の 진짜 고민스러운 資料라고 할 것 같으면, 豫決委員會 國會議員 중에 趙容直 委員 한 분입니까?

全 豫決委員 서울시 출신들한테 이 資料를 다 주고, 서울시 출신 議員들이 전체 모여서 좋다, 우리가 서울시의 財政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450億원을 합심해서 주자, 하는 議員들 전체 동의가 있어도 國家에서 줄까 말까 하는데 趙容直 委員 한 분 주셔 가지고 내가 할 바 다 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行政1副市長 金義在; 할 바 다 했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순한 부분을 자꾸 떼어서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대단히 答辯하기가 어려운데요.

○朴謙洙 委員;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편 단편을 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느냐 하는데, 그것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問題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한테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地下鐵 負債라든지 이런 問題는 언론에도 수없이 報道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번 해서 이 問題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왜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만일에 기자회견을 한번 해서 된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기자실에 가지고 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問題가 논의되고 있다 하고 報道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3代 議會에서도 本會議 市政質問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財政問題, 저희가 재정상 政府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問題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政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市에 대한 시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朴謙洙 委員; 行政1副市長님, 제가 생각할 때 行政1副市長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市內 地下鐵에 負債가 있다는 것을 서울市民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行政1副市長님께 얘기하는 것은 서울市內 地下鐵의 負債問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國家에서 당연히 450億원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자회견할 때 서울市 地下鐵에 負債가 많다, 이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합의한 450億원을 안 주는 것.....

○行政1副市長 金義在; 그 問題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地下鐵이 負債를 가지게 된 것도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바와 같이 政府의 支援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市가 1期 地下鐵에 約 4%정도의 政府支援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地下鐵 總 建設金額의 負債部分은 전액 서울市 負債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市가 지금 가지고 있는 7,000億원의 負債 중에 約 89%가 地下鐵 負債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政府의 支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政府의 支援이 충분했다라면 이만한 負債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問題는 언론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朴謙洙 委員; 서울市民한테 물어 보십시오. 城南 建設해 주고 450億원 못 받는데 國家에서 약속을 해 주었다, 이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보십시오. 모릅니다.

서울市民한테 그것을 홍보를 하라는 것이지 제 말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城南 建設해 주고 450億원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利子가 46億원이나 나갔습니다, 이것을 서울市民들한테 홍보해 주라 이것입니다.

○委員長 李昌根; 答辯은, 하시겠냐, 못 하시겠냐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기자회견.....

○行政1副市長 金義在; 기자회견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朴謙洙 委員; 기자회견 하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다음은 黃炳五 委員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黃炳五 委員; 黃炳五 委員입니다.

어차피 行政1副市長께서 나오셔서 說明을 하고, 委員들이 추구를 하는 뜻은 6·27 지방선거 이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問題가 地方自治가 정착이 되면 될수록 이해관계에 얽힌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同僚委員들이 質問을 했습니다만, 本委員이 市政質問할 때도 市長께서도 學究타입, 그냥 앉아서 안주하지 마시고 國會나 財經院이나 建交部나 國務總理室이나 옛날처럼 관선 단체장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어떤 로비스트라도 만들어서 우리 서울市 이익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서울市議會의 힘도 구하고, 독단적으로 執行部 行政府에서만 처리하려고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좋은 말 써져 있네요. '서울市는 지방교부금과 지방잉여금을 전혀 교부받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地方財政自立度를 핑계삼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서울

市 중·고등학교 敎員의 인건비 전액 年間 2,205億원을 負擔하고 있고,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45%에 해당하는 1,822億원을 今年度 敎育시설 財源으로 支援하는 등 總 4,110億원을 우리 서울市가 負擔하고 있으면 어느 것으로라도 서울市가 담보로 잡고 中央政府하고 어떤 타결책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더 나가면 件件 어느 것을 명쾌하게 答辯하겠어요?

전체적으로 本委員이 行政1副市長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委員님들 의지도 알고 하기 때문에 해결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行政1副市長의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전혀 의지 있는 答辯을 안 하기 때문에 本委員이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표명을 명확히 해주면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委員님, 제가 한두 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저의 의지는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黃炳五 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그러면 地下鐵 城南線 450億원의 融資部分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마치고자 하는데 委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시지요?

○李允中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委員長 李昌根; 그러면 李允中 委員님 한 분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李允中 委員; 李允中 委員입니다.

行政1副市長의 答辯을 지금까지 죽 들어본 결과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적인 答辯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委員

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결론적인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行政1副市長 金義在; 그 동안 地下鐵 建設財源問題 關係에서 우리가 財經院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일층 분발해서 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執行部에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좋은 의지를 발표하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도 기대가 됩니다.

고로 地下鐵 城南線 450億원 融資部分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이것으로 마치고, 金義在 行政1副市長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停會를 선언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07分 監查中止)

(12時 08分 監查繼續)

○委員長 李昌根;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李始英 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始英 委員; 李始英 委員입니다.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11月 15日 開花山 電鐵驛에 저희들 小委員會에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小委員會 이름으로 5-2工區 현장 실시 설계도면을 요구했고, 시설물 설계도면을 요구했고, 유신감리 설계조사 내역서를 저희들이 요구했으며, 前 構造物과 現 構

造物에 대해서 설계변경 이유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출발하기 전에 地下鐵建設本部 차장님께서 현장에 가면 小委員會에서 요구한 資料는 전부 되어 있으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建設4部長 金鍾天한테 묻겠습니다. 그날 저희들 小委員會에서 그곳에 참석했을 때 실시설계도면과 시설물설계도면, 유신감리설계도면, 조사내역서, 前 構造物과 現 構造物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서, 이런 資料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建設4部長 金鍾天 答辯드리겠습니다.

95年 11月 15日 안전점검 검사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정보를 받고, 현장에는 5-2工區 토목 실시설계도면, 또 대형 실시설계도면, 전기설비, 건축 실시설계도면을 비치해 놓고 자원봉사자, 委員님들과 같이 監査를 받았습니다.

○李始英 委員; 차후에 자원봉사자들하고 다시 이런 증인석에 세워서 그분들을 불러 이것을 다시 여쭙 보겠습니다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시설물설계도면이 없어서 開花山驛 철거문제나, 또 지상건축물, 지하건축물에 대한 그 하중문제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서 정말 그 현장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그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라는 자체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컴퓨터에 들어가는 입력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專門家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미 해석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追加資料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었습니다.

○李始英 委員; 알았습니다.

또 本委員이 어제도 자원봉사대 委員들한테 물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4部長한테 여쭙 볼 때 그곳에 그런 실시설계도면이나 시설물설계도면이 전부 되어 있지 않아서 本委員과 많은 委員들과 봉사대원들이 그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4部長께서는 다 준비되었고 그곳에서 봤지 않느냐 얘기해서 사실 어제 저녁에 봉사위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시설물설계도면은 어느 한 위원도 보지 못했다, 또 실시설계도면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1月 23日 地下鐵建設本部가 이번에 자원봉사자 중에서 토목을 담당하시는 김진언 씨하고 임명용 씨를 불렀지요?

○建設4部長 金鍾天;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李始英 委員; 그럼 누가 불렀습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실무선에서 구조계산 問題 때문에 서로 討論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대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李始英 委員; 그러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누가 불렀습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擔當課長하고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答辯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昌根; 擔當課長 이름을 대세요.

○建設4部長 金鍾天; 金永福 課長입니다.

○朴謙洙 委員; 제가 보충적으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安全診斷小委員會가 활동하게 되는 것은 地下鐵建設本部 立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立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立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地下鐵建設은 어디까

지나 안전하게 設計가 되고 施工이 되어서 시민들이 타는 데 不便이 없도록 하자 하는 그 趣旨에서 저희들이 安全診斷小委員會가 지난 漢江 하저터널 침수 이후에 발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자체는, 地下鐵建設本部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비리를 파헤쳐서 建設하는 데 방향이 잘못 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地下鐵建設本부와 똑같은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建設工法부터 市民한테 개방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이 믿고 地下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상당히 좀 問題가 많다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質問하고 答辯하는 過程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李始英 小委員長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결론적으로 小委員會에서 오늘 활동 자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資料들, 여기 지금 저희가 용어자체를 확실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실시설계도면, 시설물설계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나와 계신 현장 건설회사 간부들하고 몇 마디 물어보고 나서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本部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이것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단하고, 그러면 현장이라도 가 보자 그래서 5-2工區부터 3工區까지 직접 시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部長님 말씀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이 못

봤다, 이럴 경우에는 部長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建設4部長 金鍾天; 제가 책임을 지지요.

○朴謙洙 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小委員會 활동을 하고 있는데, 小委員會 저희들이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 활동을 달성하고자 저희들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페이도 지불 없이, 쉽게 얘기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市民 입장에서 그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 활동하는 자체는 저희 小委員長을 비롯한 저희 委員들이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小委員會를 보조로 돕고 있는 專門委員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專門委員도 모르고, 小委員長도 모르고, 小委員도 모르게 누가 專門委員들을 데려다가 설명을 했습니까? 지금 地下鐵建設本部 입장에서 그렇게도 마음대로 小委員會 활동 자체를 우습게 알고 서울시議會 자체를 우습게 아는 그런 일을 해도 됩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建設4部長 金鍾天; 答辯드리겠습니다.

朴謙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다 맞고, 다만 기술이라는 것은, 구조라는 것은 서로 모르면 묻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小委員會인지 무엇인지, 자원봉사자를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아마 실무선에서 대화가 안 되니까 전화로.....

○委員長 李昌根; 部長님, 실무자는 地下鐵建設 관계되는 職員 아십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職員도 있고, 설계 엔지니어도 있고.

○委員長 李昌根; 그렇다면 部長님께서서는 地下鐵建設에 관계된 대표자로서 答辯하는 것입니까, 개인으로 答辯하는 것입니까?

까?

○建設4部長 金鍾天; 建設4部長 金鍾天으로서 答辯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昌根; 거기 예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예속이 됩니다.

○委員長 李昌根; 그런데 왜 명백하지 않아요?

○建設4部長 金鍾天;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委員長 李昌根;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몰랐던 것은 직무유기지요.

이렇게 되면 答辯이 명백하지 않아서 監査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고 명백하게 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是正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部長으로서 능력이 있는 것이지 밑에서 한 것은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밑에서 잘못 한 것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그러면 答辯을 정확하게 잘 해 주어요.

○金永姬 委員; 部長님은 전혀 몰랐다고 그러시는데 課長이 그런 행위를 할 때 部長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합니까? 멋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기술자끼리 토의하는 것을 무슨 승인을 받으니까, 公務行爲가 아니지요.

○金永姬 委員; 그러면 완전히 私的으로 한 것입니까?

○朴謙洙 委員; 小委員會 諮問委員이 기술자입니까? 小委員會 諮問委員으로 활동하는 분이 기술자입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아니지요, 자원봉사자 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朴謙洙 委員; 그분들이 地下鐵建設本部 소속입니까, 서울 市議員 소속입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두 분들이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들한테 물어 보아야지 전혀 모르지요.

○朴謙洙 委員; 部長님, 서울시 小委員會 활동을 하고 있는 諮問委員들이 地下鐵建設本部傘下 諮問委員입니까, 서울시議 會 傘下 諮問委員입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朴謙洙 委員; 그러니까 어디 諮問委員이예요?

○建設4部長 金鍾天; 市議會 交通常任委員會 諮問委員이지요.

○朴謙洙 委員; 그냥 기술자가 아니고 交通常任委員會 諮問委 員이지요?

○建設4部長 金鍾天; 네.

○朴謙洙 委員; 그런데 交通常任委員會 小委員會 諮問委員인 데 小委員會 활동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建設4部長 金鍾天; 네.

○朴謙洙 委員;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小委員長도 모르고, 委員들도 모르고, 專門委員도 모르고 이것이 누가 보 면 납득이 됩니까?

○建設4部長 金鍾天; 제가 알기로는 아마 設計라는 것이.....

○朴謙洙 委員; 잠깐만요. 本部員님, 本部長님께서 이런 상 황을 報告를 받으셨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學載;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朴謙洙 委員; 本部長님, 이 상황을 정확하게 本部長님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學載; 제가 交通委員會委員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小委員會 활동이 진행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市民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行政事務監査의 일환으로 진행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어디까지나 성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직을 管理하는 제 입장에서는 충실히 그러한 趣旨에 맞추어서 조직을 가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委員님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이 없으시니까 일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小委員會 활동을 하고 小委員會 활동자체는 어차피 委員長님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이 되어야 되고, 監査를 받는 저희 本部 입장에서는 本部員 지휘 하에 監査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受監을 하는 저희 입장이나, 그간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산만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受監하는 자세에 問題가 있었다면 제가 다시 챙겨 보고 정식으로 가다듬겠습니다. 잘못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議會나 저희 執行部가 그러한 절차를 좀 스킵 아웃하게 되면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始英 委員; 本部長님, 李始英 委員입니다.

제가 어제 開花山 小委員會 활동에 대해서 本部長님한테 몇 가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小委員會 활동하기 전에 15日 開花山을 출발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地下鐵建設本部 次長님한테 여쭙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資料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깐 어떻게 우리가 출발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현장에 가면 100% 資料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으로 출발했는데 자원봉사요원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여기 小委員들 다 계십니다. 가서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資料를 전혀 준비해 놓지 않고 내 놓지를 않았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안별로 問題를 물었더니 유신 설계감리단에서 오셔서 자원봉사 대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명쾌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施設物設計圖面을 가져 오너라, 내놓아라 했더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봉사대원들과 小委員會가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눈으로 보자, 그래서 5-2工區, 5-3工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선 저희들 많은 委員들이指摘한 것이 漏水現象이 나오는 조목 조목을 열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3日 우리 자원봉사단으로 있는 김진언 씨, 이 분은 地質 專門家입니다. 그리고 임명용 씨 이 분도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 자원봉사대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을 地下鐵建設本部로 오시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本部長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部長 얘기를 들으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개 事務官 한 사람이 小委員會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상황설명을 했다는데,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무슨 설명을 들었습니까, 물었더니 유신 설계감리단에 있는 그분이 오셔 가지고 그 날 있었던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거기서도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그 말 한 마디 하고, 또 開花山驛에 재시공을 하고 나서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그 問題를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執行部쪽의 명쾌한 대답은 듣지 못 했고, 사실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사시트工法에 대한 설명도 누누하게 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먼것번에 小委員會에서 指摘된 방수부분, 그것은 직접 하고 있고, 또 100%에 가깝게 작업을 지시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23日 午後 3時부터 장장 午後 7時까지 地下鐵建設本部에서 회의를 했다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小委員長이 몰라도 좋고, 委員들이 몰라도 좋고, 議會에 있는 議員들을 돕고 있는 專門委員한테는 최소한 이리 이리한 사안이 벌어졌으니까 委員님들이 잘 모르고 의문점이 가는 것은 자원봉사자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說明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제도 깔지 않고, 일방적으로 地下鐵建設本部 4部 課長님이 임의대로 불러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本部長님, 그것에 대한 答辯을 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學載; 지금 小委員會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저하고 모두는 별개 問題입니다.

저는 어차피 서울市議會 交通委員會의 受監을 받고 있고, 모든 활동은 委員長님의 지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들이 절차에 따라서 委員長님을 통해 가지고 또 그것이 執行部로 넘어올 때는 地下鐵建設本部長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저는 조직을 조직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흐름과정에서 錯誤가,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저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職員이 議會에 諮問을 해 주고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議會活動에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업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네, 됐습니다.

그리고 小委員長은 本 常任委員會에서 결의를 보아 가지고 業務를 하시는 관계로 해서 委員長의 지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學載; 資料의 제시나 또는 어떤 監査에 대한 행위를 절차에 따라서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受監하는 입장에서 예의를 그르치지 않는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昌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李始英 委員님 됐습니까?

○李始英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李昌根;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또한 장시간 여러 委員님 質疑答辯에 수고해 주신 執行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여러 委員님들 수고 많습니다. 또한 오늘 監査에서 指摘된 사항들 중 是正 措置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是正措置를 하여 주시고, 中央政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서 試行錯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民願事項은 市民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地下鐵建設本部에 대한 서울特別市議會

行政事務監査와 質疑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午後에는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31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李昌根 金永姬 金永春 金亨吉
朴謙洙 李始英 李允中 鄭炳仁
趙上男 洪性龍 黃炳五 金成春
李智文 李聲九

○專門委員

金泰鎬

○被監査機關參席者

行政1副市長 金義在
地下鐵建設本部
本部長 金學載
建設4部長 金鍾天